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17일 화요일 음 11월 21일 (13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낮 동안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다 밤이 되면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 phase, and moonrise/moonset times.

주간예보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he next few days.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information on food safety and fog/dust levels.

월드뉴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무분별 등정 제한

병력 제출... 보험도 들어야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를 오르려는 등반가는 앞으로 नेपाल 정부에 자세한 병력(病歷) 서류를 내고 보험도 들어야 한다.



등반객들로 장사진 이룬 에베레스트 능선.

16일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नेपाल 관광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등반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네팔 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등반 초보자'들의 무분별한 에베레스트 등정 도전으로 인해 다른 등반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등반가들은 수색, 구조, 치료, 시신 수습 등과 관련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봄 등반 시즌에 에베레스트에서는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희생자 중 상당수의 사인으로 정상 부근 '병목 현상'이 지적됐다.

현재 해발 8000m 이상 지점의 시신을 수습하려면 20만달러(약 2억 3000만원)가량이 드는 상황이다.

등반가가 죽고 가파른 정상 부근에서 여러 시간씩 기다리다가 산소가 동나고 체력이 드는 상황이다.

이번 초안은 관광부 장관 승인과 내각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을 얻는다.

과정 등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정보,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하라칼럼



고 찬 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한 해를 보내며 온라인 사전 덕서너리닷컴에서는 금년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로 'existential(실존적)'을 선정했다.

존재의 무게와 그 책임감

지 못하고 엄혹한 세상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는 이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게 된다.

버릴 여지마저 있다. 그럼에도 믿을 지키는 이들은 아직 순진무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과언일까.

필자도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 보니 이 위기감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몇 년 전 유학을 떠났던 후 배로부터 온 최근 문자 한 통이 이 냉소적 태도를 예기치 않게 뒤바꾸어 놓았다.

대단한 힘을 행사해 온 굉장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몸짓으로 일으킨 그 바람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자신을 향해 불어오게 마련이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지나간 사소한 행동이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 사회를 더 위기와 혼란에 빠트린 건 않았는지 되묻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존재를 시시하게 만들어버린 '나 하나쯤'이란 안이한 태도는 묵은 한해와 함께 떠나보내야 한다.

열린마당

안전한 겨울나기! 우리 함께 노력해야



송승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주특유의 강풍과 함께 대설·한파는 도로 결빙, 시설물 파손, 수도 계량기 동파, 안전사고 발생, 전기 사용량 급증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3대 겨울용품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강민기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아직까지는 큰 추위가 없었지만 올해 태풍이 잦았던 만큼 올 겨울 추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얇고 멀티탭에 전기제품을 여러 개 꽂아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장판의 경우 안전인증(KC마크)을 확인하고 온도 조절기를 밝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또, 등방방지 등 전기열선의 경우 안전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과일 차단장치 및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시로 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의 경우 불연재로 된 벽도의 실에 설치하고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이상 연통 청소를 하며 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통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거리에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3대 겨울용품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 숙지로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Jeju City Government News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and announcemen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Museum 2019 Winter Music Festival announcement.

Seogwi City Government News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and announcemen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2020 Winter Training Course announcement.